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 X 

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02

# 슬로브핫의 딸들이 온다

(민수기 27장 1~11절)

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 
4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가나안 땅 앞  
요단강가에 도착했어요.  
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 
사람들의 수를 세기 시작했어요.

**“자, 자, 거기 뒤에 손 높이 들어보요!  
육십만 천 칠백 이십 팔 명, 이십 구 명...  
아 조용히 좀 해요, 헛갈리잖아!”**

601,730명! 그런데 이 숫자는  
20세 이상 남자들만 센 거였어요.

물론 여자와 아이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지만,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을 세어서 땅을 나누어주었습니다.

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평의 땅도 못 받는 거였죠.

그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.

친구 여러분!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 
딸 부잣집 다섯 자매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.

큰 언니 말라와 둘째 노아, 셋째 호글라와  
넷째 밀가, 그리고 막내 디르사  
성경에 ‘슬로브핫의 딸들’이라고  
등장하는 다섯 명의 자매가 모여서  
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...

“아니, 집안에 아들이 없다고 우리 집만 땅을  
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?  
아무리 법이 그렇다지만 너무나한 거 아니야?”

**둘째 노아가 말문을 열었어요.  
다섯 자매의 아버지 슬로브핫은 광야에서  
돌아가셨고 집안에는 아들이 없고  
딸들만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도  
땅을 나눠받지 못 한다는 거였어요.**

**“맞아요, 우리가 땅을 받지 못 하면 돌아가신  
아빠의 이름도 사라져버리잖아요.”**

**잠자코 동생들의 말을 듣던 맏언니 말라가  
차분하게 정리를 했습니다.**

**“그래, 애들아. 그러면 내일 회막 앞으로 가서  
모세 할아버지한테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자.”**

**두둥! 드디어 다음날 아침해가 밝았어요.**

**마을 중앙의 회막 앞에는 모세, 대제사장과  
지도자들,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.**

**“아침부터 무슨 일이야?  
대제사장과 어른들이 다 나와 있네.  
아니, 모세님도 나오셨네?”**

**“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슬로브핫 알지?  
그 집안의 딸들이 모세님한테  
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였다네.  
어린 여자애들이 당돌하네 그러...”**

모세가 자매들에게 말했어요.

**“자, 이렇게 다들 모였으니 너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거라.”**

사람들의 눈동자가 자매들에게 향했어요.  
슬로브핫의 딸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 
눈빛이 반짝반짝 했어요.  
만언니 말라는 긴장이 되는 듯 숨을 들이마시고는  
말문을 열었어요.

**“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지만  
하나님을 배신해서 벌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.”**

**그런데 아버지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 
우리가 땅을 나눠받지 못 하고,  
가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고,  
우리는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니  
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?  
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땅을  
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땅을 나눠주세요.”**

**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당당했어요.  
하지만 눈을 감고 자매의 말을 듣던  
모세의 고민이 시작되었답니다.**

**”꿈~ 하나님께 좀 여쭙보고 올테니  
기다리도록 하여라...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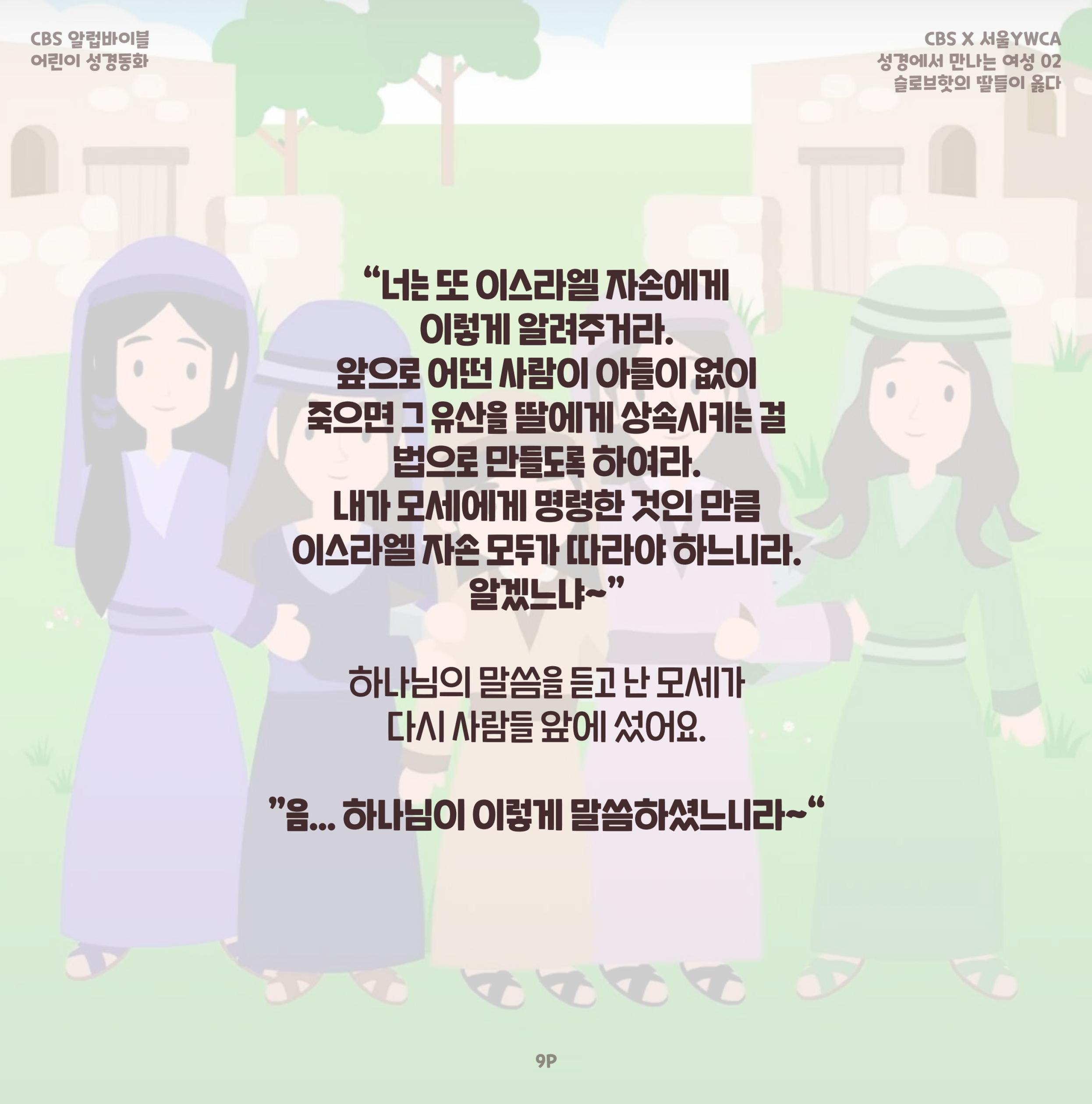
모세는 조용히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.

**“하나님,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 
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..  
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”**

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하셨어요.

**“슬로브핫의 딸들이 한 말이 옳도다.  
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땅을 물려받을 때에  
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땅을 그 딸들이  
나누어 받게 하여라~”**

그리고 하나님은 묻지도 않은 것까지 명령하셨어요!



**“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 
이렇게 알려주거라.  
앞으로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 
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키는 걸  
법으로 만들도록 하여라.  
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인 만큼  
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따라야 하느니라.  
알겠느냐~”**

**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모세가  
다시 사람들 앞에 섰어요.**

**”음...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~“**

슬로브핫의 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 
환호했어요!

”언니들, 모세님 말씀 들었지?  
하나님이 우리 말이 맞다고 하셨대!“

”그래 애들아.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 
들어가면 우리도 땃땃하게 아바뉘의  
땅을 물려받고 우리 가문도 이어질 수 있어~!“

가나안 땅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 
이루는 데 동참하게 됐어요.